

## 인천시민 건강 우리가 지킨다!

**협**회는 1961년 4월 1일 창립하여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 인정받고 있다. 1999년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인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모자보건 확대, 사회복지 증진으로 사업목표가 바뀌어 모성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노인복지 사업에 힘쓰고 있다. 협회 인천지회는 82년 7월 설립되어, 현재 가족보건의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 성폭력상담소, 재가노인복지센터, 서구문화의 집, 만월어린이집 등 6개 부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저 소득층 수급 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



협회의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인천지역에서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개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이·미용, 한글교실, 생신잔치, 목욕릴레이, 도배 및 장판지원, 무료백내장수술지원, 무료틀니제작지원, 동계김장지원 및 나들이 등 노인축제행사) 등을 개발,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인천지회에서는 가정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성폭력 상담사업을 시행, 성폭력 상담은 물론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후 각 병원, 경찰, 법률기관 등과의 연계로 도움을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주며 피해자에게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약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과학적인 성지식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시키며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알찬 성교육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 (가족보건의원)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진 · 무료분만 혜택 · 국가암 검진

첫째, 협회 추진 사업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업은 어린이 심장병 예방을 위한 심장질환 검진사업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91,254명을 검진, 305명 (0.33%)의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이들 중 20명이 수(시)술을 받았으며 후원자와 연계하여 전액 또는 일부지원, 실비부담으로 수술토록 하였다. 그 외 유소견자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처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치료 혜택을 주었으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천 시내 초등학교 1학년의 전체 100%를 대상으로 38,000여 명을 검진할 계획이다.

둘째, 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는 가족계획 및 피임실천, 모자보건, 가정복지사업 등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매년 250-300여 명의 임신부에게 무료분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인천에서 최초로 대형이동검진 버스와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등을 검진하는 최첨단 검사 장비를 통해 이동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 발견사업과 연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족보건의원의 주요진료(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부분과 건강검진 사업의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장비 등 시설과 직원들의 친절한 근무 자세는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서비스로 평가된다. 가족보건의원의 일부 수익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

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인간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실현을 위해 앞으로 계속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PPPK**